공정거래위원회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9. 7.(수) 12:00 <9. 8.(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9. 7.(수) 08:30
담당 부서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책임자	과 장 민혜영 (044-200-4842)
		담당자	사무관 안영철 (044-200-4844)
			조사관 최준호 (044-200-4851)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 공개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증가 -
- 국외계열사 ·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 · 강화에 시장 감시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 ① 총수 있는 기업집단: 66개(2,706개사) / 총수 없는 기업집단: 10개(180개사)
② 2년 연속 지정된 집단: 68개(2,657개사) / 신규 지정집단: 8개(229개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①내부지분율 현황과 ②그 세부 내역(총수일가, 공익법인, 국외계열사*, 금융보험사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횡단면·시계열 분석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에 따라 공시된,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 보유한 국외계열사** /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 현황 정보 항목도 새롭게 공개(붙임 5 참조)

- ③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④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분석

*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에 따른 회사 현황을 분석·공개(붙임 4 참조)
- (개정 전) 상장 30%·비상장 20%이상→ (개정 후) 상장·비상장사 20% 이상(그 자회사 포함)

< 주요 분석·공개 내용 >

□ **전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연속 지정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증가(59.7%→60.2%)하고,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들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71개 집단, 58.1%)보다 **2.3%p 증가**했다.

□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60개, 58.0%)보다 **1.9%p 증가**했다.

○ **총수일가 지분율**은 3.7%, **계열회사 지분율**은 53.3%,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9%로 지난해보다 각각 0.2%p, 1.6%p, 0.1%p **상승**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5개사) 보다 **570개사 증가**(3.15배)했다.

○ 개정 법 시행('21.12.30.)으로 **종래 규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 범위***에 **포함**되었고, 금년 지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 (기존)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 회사 → (개정) ①총수일가 보유지분 20% 이상 회사 및 ②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 중 **연속 지정집단(58개)**에 속하는 회사는 **703개**(84.2%), **신규 지정집단(8개)**에 속하는 회사는 **132개**(15.8%)이다.

- 계열회사 수 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은 **신규 지정집단**이 **57.6%**로 **연속 지정집단(28.4%)의 약 2배**에 달한다.

□ **(국외계열사)** 총수 있는 집단(66개) 중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9개 집단의 21개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 **23개 집단의 89개 국외계열사가 66개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 (**간접출자**)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함

-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케이씨씨」(각 6개), 「엘지」·「한화」(각 5개) 순이다.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 출자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 계열출자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가 전년 대비 **증가**(+22개)한 것은 **신규 지정집단의 영향**(+14개)과 **연속 지정집단**에서의 계열출자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 **증가**(+8개)에 기인한다.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피출자회사 수)	69(124)	75(138)	78(139)	**90(155)**
계열출자 공익법인 수(피출자회사 수)	65(124)	68(128)	69(125)	**79(142)**

□ **(순환·상호출자)** 순환·상호출자 보유 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 수**는 **4개 증가**(6개→10개)했고, **상호출자 수**는 **3개 증가**(5개→8개)했다.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구 분	'21년	'22년
순환출자	현대자동차(4), 태광(2)	현대자동차(4), 태광(2), **보성(1), 태광(3)**
상호출자	중흥건설(1), 오씨아이(1), 태광(1), **SM(1), 장금상선(1)**	중흥건설(1), 오씨아이(1), 태광(1), **보성(2), KG(2), 일진(1)**

* 「중흥건설」, 「오씨아이」는 금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상호출자를 법정 기한 내(지정일부터 1년)에 해소해야 함

○ 한편,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보유하는 기업집단(「하이트진로」, 각 1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

□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

* 국외계열사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부과 등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규제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편

○ 또한, 신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기업집단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집단 법제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이번 주식 소유 현황 발표 이후에도 **채무보증 현황(10월), 내부거래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정보공개 고도화 업무 추진**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1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1.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76개)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71개 집단, 58.1%)보다 **2.3%p 증가**했다.

*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

□ 금년 신규 지정집단(8개)의 내부지분율이 **75.6%**로 전체 집단의 내부지분율 상승(58.1%→60.4%)을 견인했다.

○ 연속 지정집단(68개)의 내부지분율도 **60.2%**로 전년보다 0.5%p 증가했다.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

('21. 5. 1. 및 '22. 5. 1. 기준, 단위: %, %p)

구 분		동일인 및 친족			동일인 및 친족 이외			합계
		동일인	친족	소계	계열회사	기타*	소계	
전체	'21년(71개)	6.8	1.6	8.4	47.2	2.5	49.7	58.1
	'22년(76개)	**7.4**	**1.7**	**9.1**	**48.7**	**2.6**	**51.3**	**60.4**
	증감(%p)	0.6	0.1	0.7	1.5	0.1	1.6	2.3
연속지정 (68개)	'21년	7.2	1.7	8.9	48.1	2.7	50.8	59.7
	'22년	**7.5**	**1.6**	**9.1**	**48.5**	**2.6**	**51.1**	**60.2**
	증감(%p)	0.3	△0.1	0.2	0.4	△0.1	0.3	0.5

* 동일인・친족・계열회사를 제외한 동일인관련자로서 임원・비영리법인・자기주식의 합(이하 동일)

2. 총수 있는 집단(66개)

□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58.0%)보다 **1.9%p 증가**했다.

○ 총수일가・계열회사의 지분율은 각각 0.2%p, 1.6%p 증가한 반면, 임원 지분율은 0.1%p 감소했다.

<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

('21. 5. 1. 및 '22. 5. 1. 기준, 단위: %, %p)

구 분		총수일가			계열회사	기타				합계
		동일인	친족	소계		비영리법인	임원	자사주	소계	
전체	'21년(60개)	1.6	1.9	3.5	51.7	0.2	0.2	2.4	2.8	58.0
	'22년(66개)	**1.7**	**2.0**	**3.7**	**53.3**	**0.2**	**0.1**	**2.6**	**2.9**	**59.9**
	증감(%p)	0.1	0.1	0.2	1.6	-	△0.1	0.2	0.1	1.9
신규지정	'22년(8개)	3.0	5.2	8.2	65.6	0.5	0.1	1.2	1.8	75.6

※ 총수 있는 신규 지정집단(8):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 57.9%('18년)→ 57.5%('19년)→ 57.0%('20년)→ 58.0%('21년)→ 59.9%('22년)

□ **최근 20년간**(2003년~2022년)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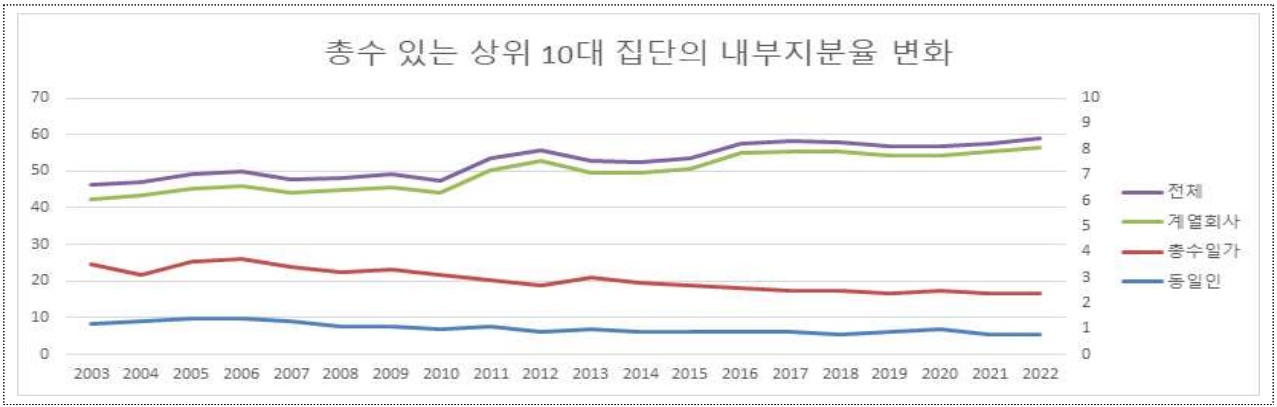
○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내부지분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 변화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

구 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동일인 (총수일가)	1.3 (3.1)	1.4 (3.7)	1.1 (3.2)	1.0 (3.1)	0.9 (2.7)	0.9 (2.8)	0.9 (2.6)	0.8 (2.5)	1.0 (2.5)	**0.8 (2.4)**
계열회사*	43.3	46.0	44.7	44.0	52.8	49.5	54.9	55.2	54.2	**56.5**
내부지분율	47.1	49.8	48.3	47.4	55.7	52.5	57.6	58.0	56.8	**59.1**

* 자기주식은 계열회사 지분에 포함되어 있음



* (좌측 범례) 전체·계열회사 지분율, (우측 범례) 동일인·총수일가 지분율

3. 총수 없는 집단(10개)

□ 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2.6%로, 동일인·계열회사 지분율이 상승하여 지난해(11개 집단, 59.0%) 대비 3.6%p 증가했다.

< 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

('21. 5. 1.및 '22. 5. 1. 기준, 단위: %, %p)

구 분	동일인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자사주	합계
'21년(11개)	32.1	25.2	0.3	0.1	1.3	59.0
'22년(10개)	**33.3**	**28.1**	**0.3**	**0.1**	**0.8**	**62.6**
증감(%p)	1.2	2.9	-	-	△0.5	3.6

2 내부지분율 세부 내역

1. 총수일가의 출자 현황

□ **(총수일가 전체)** 총수일가는 **66개 집단의 547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2,706개 대비 20.2%)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2%**이다. (전체 2,706개 대비는 3.7%)

○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40%), 「크래프톤」(40.07%), 「케이씨씨」(35.36%), 「농심」(30.53%), 「DB」(28.57%) 순이고,

-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34%), 「현대중공업」(0.48%), 「에스케이」(0.50%), 「카카오」(0.56%), 「장금상선」(0.67%) 순이다.

<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 낮은 집단 현황 >

('22. 5. 1. 기준, 단위: %, 개)

순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			
	집단명	총수일가	동일인 단독	총수일가/전체*	집단명	총수일가	동일인 단독	총수일가/전체*
1	한국타이어	43.40	0.11	13/23	두나무	0.34	0.29	2/14
2	크래프톤	40.07	39.82	2/10	현대중공업	0.48	0.40	5/36
3	케이씨씨	35.36	5.46	8/14	에스케이	0.50	0.03	11/186
4	농심	30.53	6.30	18/24	카카오	0.56	0.56	3/136
5	DB	28.57	17.72	10/20	장금상선	0.67	0.15	6/30

*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수 / 전체 계열회사 수

○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2,159개사**(79.8%)이다.

□ **(총수)** 총수 있는 집단(66개 집단, 2,706개사)의 **동일인(총수)은 65개 집단 소속 284개 계열회사**(10.5%)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2%**이다. (전체 2,706개사 대비는 1.6%)

○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39.82%), 「부영」(20.65%), 「아모레퍼시픽」(20.41%), 「DB」(17.72%), 「태광」(13.05%) 순이고,

- **총수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0%), 「DL」(0.003%), 「에스케이」(0.025%), 「태영」(0.037%), 「한국타이어」(0.109%) 순이다.

< 총수 지분율이 높은 / 낮은 집단현황 >

('22. 5. 1. 기준, 단위: %, 개)

순위	총수 지분율이 높은 집단			총수 지분율이 낮은 집단		
	집단명	지분율	총수보유/전체*	집단명	지분율	총수보유/전체*
1	크래프톤	39.82	2/10	대방건설	0	0/45
2	부영	20.65	8/22	DL	0.003	1/42
3	아모레퍼시픽	20.41	2/13	에스케이	0.025	5/186
4	DB	17.72	8/20	태영	0.037	2/76
5	태광	13.05	9/19	한국타이어	0.109	1/23

* 해당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 / 전체 계열회사 수

○ **총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열회사**는 **66개 집단**의 **2,422개사** (89.5%)이다.

□ **(총수 2세)** 총수 2세(동일인의 자녀)는 **52개 집단 소속 222개 계열회사** (전체 계열회사 2,706개 대비 8.2%)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5.4%**이다. (전체 2,706개사 대비는 0.7%)

○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0.0%), 「일진」(12.9%), 「반도홀딩스」(10.9%), 「DB」(10.7%), 「동원」(9.4%) 순이다.

<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 낮은 집단현황 >

('22. 5. 1. 기준, 단위: %, 개)

순위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			총수 2세 지분율이 낮은 집단		
	집단명	지분율	총수2세/전체*	집단명	지분율	총수2세/전체*
1	한국타이어	40.0	13/23	오씨아이	0.0001	1/22
2	일진	12.9	11/38	카카오	0.0019	1/136
3	반도홀딩스	10.9	8/25	두산	0.0062	3/21
4	DB	10.7	9/20	미래에셋	0.0114	1/40
5	동원	9.4	2/26	오케이금융그룹	0.0125	1/19

*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 / 전체 계열회사 수

○ 한편, **14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이 **없다.**

*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진」, 「네이버」, 「현대백화점」, 「셀트리온」, 「교보생명보험」, 「넷마블」, 「두나무」, 「이랜드」, 「크래프톤」

2. 국내외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출자 현황

(1) 계열회사의 출자 현황

□ 66개 총수 있는 집단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3.3%**로, 지난해 대비 **1.6%p** 증가했다.

○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두나무」(98.4%), 「오케이금융그룹」(97.9%), 「대방건설」(92.6%), 낮은 집단은 「동국제강」(13.1%), 「크래프톤」(15.7%), 「현대해상화재보험」(21.7%) 순이다.

(2) 국외계열사의 출자 현황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에 따라 공시된 ①**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 및 ②**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 현황** 자료를 분석

1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

□ 66개 총수 있는 집단 중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계열사**에 대하여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국외계열사**는 **9개 집단의 21개사**이다.

※ 동일인(총수)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7개 집단 소속 11개사,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3개 집단 소속 5개사

○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 보유한 **4개 집단의 9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롯데」(4개), 「코오롱」(1개), 「장금상선」(1개), 「오케이금융그룹」(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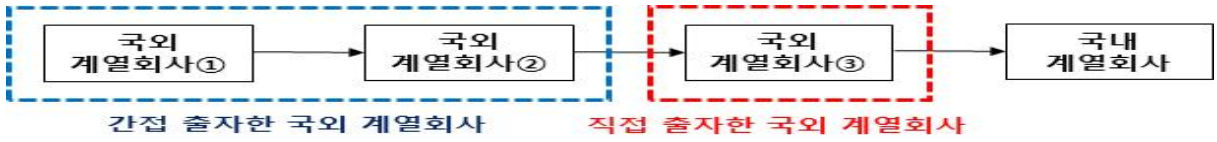
○ 국외계열사의 소재국은 미국(15개), 일본(9개), 싱가포르(7개), 홍콩·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각 2개), 멕시코·라오스·베트남(각 1개) 순이다.

2 국외계열사의 직·간접출자 현황

□ **23개 집단**(모두 총수 있는 집단) 소속 **89개 국외계열사**가 **66개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 **간접출자**: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직접출자 국외계열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

[그림 설명]



○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를 보유한 집단은 전년 대비(22개 집단) **1개 순증**(3개 집단 증가, 2개 집단 감소)했다.

<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직·간접 출자 현황 >

('21. 5. 1. 및 '22. 5. 1. 기준, 단위: %, %p)

구분	집단수	직·간접 출자 국외계열사			피출자 국내계열회사
		직접	간접	계	
'21년	22	60	개정법 시행 전	개정법 시행 전	58
'22년	**23***	**65**	**24**	**89**	**66**
증감	1	5	-	-	8

※ 23개 집단 중 **11개 집단** 소속 **24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회사(45개)에 직접 출자한 국외계열사(44개)에 직·간접 출자

○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케이씨씨」(각 6개), 「엘지」·「한화」(각 5개) 순이며,

- 피출자 국내계열회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13개), 「네이버」(11개), 「한화」(5개), 「카카오」·「오케이금융그룹」(각 4개) 순이다.

□ 23개 집단 중 **12개 집단**은 **21개 국외계열사**를 통해 **직접 출자 형태로만** 국내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나머지 **11개 집단**은 **68개 국외계열사**(직접출자 44개사 + 간접출자 24개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45개 국내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531개**의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간접출자 국외계열사에서 직접출자 국외계열사에 이르기까지의 '출자연결 구조'를 의미(출자연결 단계에서 국외계열사 구성이 다를 경우 별도 출자 구조로 산정)

○ 출자 구조 수가 많은 집단은 「**롯데**」(506개), 「**네이버**」(12개) 등이 있으며, 이들 집단은 **출자 단계***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길다**.

* 직접출자 국외계열사에 이르기까지의 국외계열사 간 '출자연결 단계'를 의미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출자현황

*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7개 집단 내 90개 비영리법인**이 **155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지분율**은 **1.20%**이다.

○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 피출자 계열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비영리법인의 계열회사 출자 현황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	71	71	69	75	78	**90**
피출자 계열회사 수	119	123	124	138	139	**155**

○ 한편, 위 비영리법인 중 45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79개사**가 **공익법인**이며, **142개 계열회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다.

※ 계열출자 공익법인 수/피출자회사 수(개)
: ('19년)65/124 → ('20년)68/128 → ('21년)69/125 → ('22년)79/142

□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의 수**가 전년 대비 **증가**(+12개)한 데에는 **신규 지정집단의 영향**(+8개, 증가분 비중 66.7%)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연속 지정집단**에서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의 수가 **전년 대비 증가**(+4개, 증가분 비중 33.3%)했다.

○ 계열출자 **공익법인의 수**도 **전년 대비 1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출자 증감 현황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구 분	'21년(A)	'22년(B)	증감 (B-A)	**'22년 수치 구성**	
				연속 지정집단(68)	**신규 지정집단(8)**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	78	90	**12**	82 **(+4)***	**8**
피출자회사수	(139)	(155)	**(16)**	142 **(+3)***	**13**
계열출자 **공익법인 수**	69	79	**10**	73 **(+4)***	**6**
피출자회사수	(125)	(142)	**(17)**	129 **(+4)***	**13**

* 연속 지정집단의 전년 대비 증가분

3. 금융·보험사의 출자 현황

□ 47개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 42개가 총 253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미래에셋」(35개), 「다우키움」(33개), 「유진」(19개), 「삼성」(16개), 「오케이금융그룹」(15개) 순이다.

□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42개) 중 25개 집단 소속 **99개 금융・보험사**가 **229개 계열회사(금융 163개, 비금융 66개*)**에 출자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39.73%로 지난해(37.79%) 대비 1.94%p 증가했다.

* 비금융사 전년 대비 **6개 순증**: 금융·보험 또는 PEF전업 집단인 「한국투자금융」·「IMM인베스트먼트」의 지정 제외(11개 감소), 연속 지정집단(1개 감소), 신규 지정집단(18개 증가)

4. 상장·비상장사의 내부지분율 현황

□ **(기업공개 현황)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76개)** 소속 2,886개사 중 **상장회사**는 **305개**(10.6%)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75.1조원**(49.4%)이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는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 수**(2,498개)의 **12.2%**, **전체 상장기업 자본금**(약 142.2조원)의 약 **52.8%**를 차지하고 있다.('22년 5월 기준)

○ **우리나라 전체 회사 수(법인) 대비 상장회사 수의 비율**이 **0.21%**(2,498개/약 118만개)*인 것과 비교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장회사 비율(10.6%)은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출처: 한국거래소(상장회사 수), 국세청(전체 회사 수)

○ **총수 있는 집단(66개)** 소속 2,706개사 중 **상장회사는 280개**(10.3%)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65.4조원**(52.5%)이다.

○ **상장회사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20개), 「삼성」(16개), 「엘지」(15개), 「현대자동차」(12개), 「롯데」(11개) 순이고,

- **기업공개비율이 높은 집단**은 「에쓰-오일」(50.0%), 「셀트리온」(42.9%), 「현대백화점」(39.1%), 「삼양」(33.3%), 「삼성」(26.7%) 순이다.

□ **(내부지분율)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상장사**(280개) **내부지분율**은 **42.2%**(지난해 41.2%)로, **비상장사**(2,426개) 79.6%(지난해 73.3%)보다 **37.4%p 낮게 나타났다.**

○ 총수 없는 집단(10개) 소속 상장사(25개) 내부지분율은 21.4%(지난해 17.0%)로, 비상장사(155개) 85.0%(지난해 87.8%)보다 63.6%p 낮게 나타났다.

3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2,706개사 중 30.9%)로 전년(57개 집단, 265개사) 보다 **570개사 증가**(3.15배)했다.

○ 이는 개정 법 시행('21.12.30.)으로 **종래 규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 범위***에 **포함**되었고, 금년 지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 (기존)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 → (개정) 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및 ②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변동 추이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규제대상 회사 수	185	227	231	219	210	265	**835**

□ 규제대상 835개사는 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347개**, ②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488개**이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유형별 개수 >

('22. 5. 1. 기준, 단위: 개)

구 분	**총수일가 보유지분 20%이상 회사 (A)**	**(A)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B)**	**전체 (A+B)**	A 및 B 모두 해당하는 회사*
회사 수	347	488	**835**	12

* 전체에서 (A) 및 (B) 모두 해당하는 회사는 '(A) 총수일가 보유지분 20%이상 회사'로만 집계

□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 중 **연속 지정집단(58개)에 속하는 회사**는 **703개**(84.2%), **신규 지정집단(8개)에 속하는 회사**는 **132개**(15.8%)이며,

○ 계열회사 수 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은 **신규 지정집단**이 **57.6%**로 **연속 지정집단(28.4%)의 약 2배**에 달한다.

< 연속 / 신규 지정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 비교 >

('22. 5. 1. 기준, 단위: 개, %)

총수 있는 집단	**전체 계열회사 수**	**규제대상 (A+B)**	**총수일가 보유지분 20%이상 회사 (A)**	**(A)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B)**
연속지정(58개 집단)	2,477	**703** (28.4)	269	434
신규지정(8개 집단)	229	**132** (57.6)	78	54
계	2,706	**835** (30.9)	347	488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42개), 「지에스」(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이며,

○ 계열회사 수 대비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 순이다.

□ 전년 대비 증가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570개사 중 **77.2%인 440개사**가 **연속 지정집단**(58개)에서 발생했다.

○ **(연속 지정집단)** 연속 지정된 58개 집단에서 **총 440개사 순증**했다. (50개 집단은 442개사 증가, 2개 집단은 2개사 감소, 6개 집단은 전년과 동일)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방건설」(+38개(4개→42개)), 「지에스」(+26개(12개→38개)), 「효성」(+20개(15개→35개)), 「호반건설」(+20개(6개→26개)) 등 순임

○ **(신규 지정집단)** 「두나무」(12개), 「크래프톤」(1개), 「보성」(26개), 「KG」(6개), 「일진」(32개), 「오케이금융그룹」(12개), 「신영」(23개), 「농심」(20개) 등 신규 지정된 8개 집단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32개사 증가**했다.

○ **(지정제외 집단)** 2개의 규제대상 회사를 보유했던 「IMM인베스트먼트」가 'PEF 전업집단'으로 지정 제외되어 **2개사**가 **감소**했다.

4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1. 순환출자 현황

□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보성」(1개) 「KG」(3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22. 5. 1.기준)

○ 순환출자 집단 수(4개)는 지난해(2개) 대비 **2개 증가**했고, 순환출자 고리 수(10개)는 지난해(6개) 대비 **4개 증가**(66.7%)했다.

< 전년 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 변동현황 >

('21. 5. 1. 및 '22. 5. 1. 기준, 단위: 개)

구분	현대자동차	태광	보성	KG	합계
'21년	4	2	-	-	6
'22년	**4**	**2**	**1**	**3**	**10**
증감	-	-	1	3	4
	ㄴ 연속 지정집단 ㄱ		ㄴ신규 지정집단ㄱ		

□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14.7.25.)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는 **10개 감소**했으며, **순환출자 고리 수**는 **473개 감소**(△97.9%)했다.

< 순환출자 집단 및 고리 수 변동 현황 >

(각 지정일 기준, 단위: 개)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기업집단	14	11	8	10	6	4	4	2	**4**
순환출자고리	483	459	94	282	41	14	21	6	**10**
고리 수 증감	-	△24	△365	188	△241	△27	7	△15	4

2. 상호출자 현황

□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중흥건설」(1개), 「오씨아이」(1개), 「태광」(1개), 「보성」(2개), 「KG」(2개), 「일진」(1개) 등 **6개 집단**에서 **8개의 상호출자**가 존재하고 있다.

○ 「SM」, 「장금상선」은 상호출자를 해소했으나, 「보성」, 「KG」, 「일진」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상호출자 수는 증가했다.

< 전년 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호출자 변동현황 >

('21. 5. 1. 및 '22. 5. 1. 기준, 단위: 개)

구분	중흥건설	오씨아이	태광	SM	장금상선	보성	KG	일진	합계
'21년	1	1	1	1	1	-	-	-	5
'22년	**1**	**1**	**1**	**0**	**0**	**2**	**2**	**1**	**8**
증감	-	-	-	△1	△1	+2	+2	+1	3
비고				해소	해소	신규 지정	신규 지정	신규 지정	

□ 「**중흥건설**」, 「**오씨아이**」는 금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상호출자를 **법정 기한 내***에 **해소**해야 한다.

* 상호출자를 보유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1년간**은 상호출자금지 법 적용을 유예(공정거래법 제31조 제3항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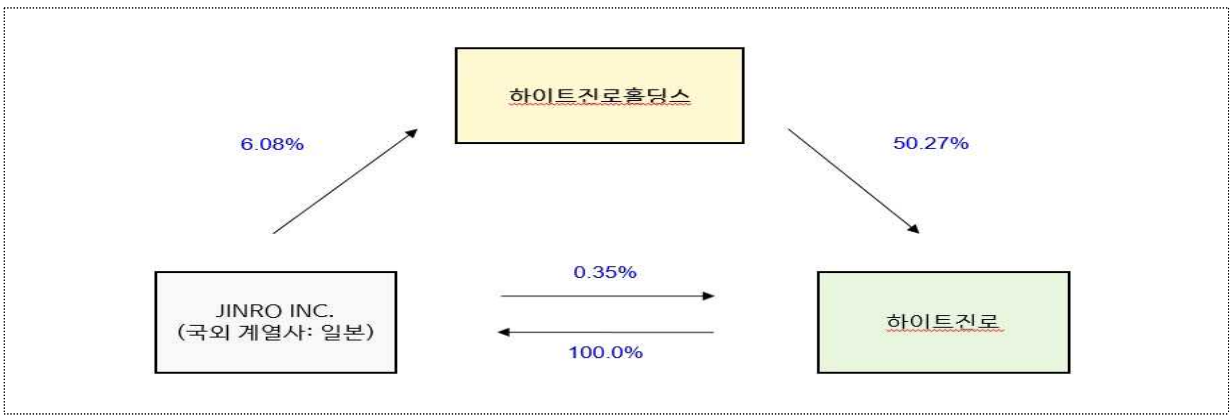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출자 현황 >

('22. 5. 1. 기준, 단위: 개, %)

집단 (상호출자 수)	상호출자 관계에 있는 회사			발생 시점	법정 해소기한
중흥건설 (1)	합자회사 중흥주택	4.34 → ← 2.95	중흥건설산업㈜	2017.09.	2023.4월말
오씨아이 (1)	에스지씨에너지㈜	31.58 → ← 3.19	에스지씨이테크건설㈜	2020.11.	2023.4월말

※ 한편, **국외계열사**를 **포함**하는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하이트진로」, 각 1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이트진로」의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상호 출자 현황 >



5 종합평가 및 정책방향

□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되었다.

* 총수일가 지분율: 3.6%('20년) → 3.5%('21년) → 3.7%('22년)

**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 보유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거나,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하는 사례 등이 존재

○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

* 국외계열사 현황 공시(법 제28조),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부과(법 제25조 및 제29조) 등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규제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265개('21.5월) → 835개('22.5월, 570개사 증가)

○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편

○ 또한, 신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기업집단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집단 법제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 우선 실시

□ 이번 주식 소유 현황 발표 이후에도 **채무보증 현황(10월), 내부거래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 고도화 업무 추진***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기업집단포털**'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인포그래픽化**(시각적 이미지)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붙임> 1.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
2. 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현황
3.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5.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직·간접 출자 현황
6. 순환출자 현황
7. 금융·보험사 출자 현황
8. 기업공개 현황
9. 공익법인 출자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